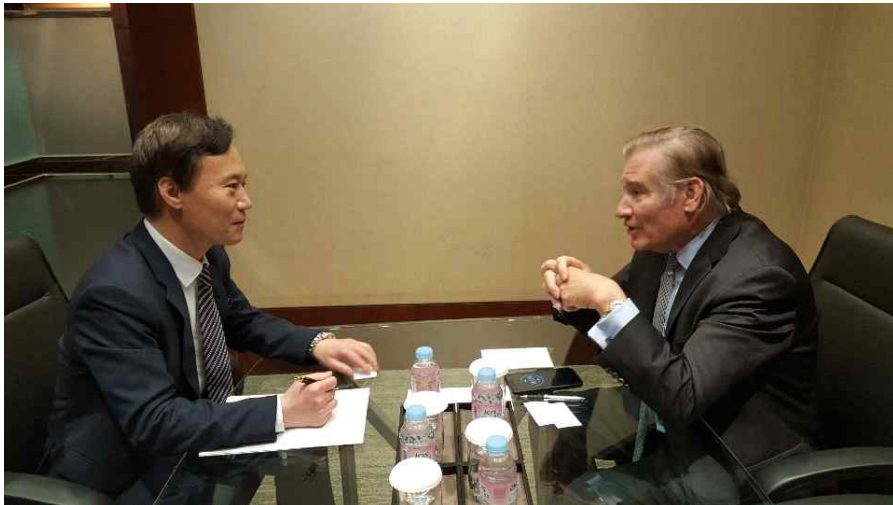




미래대담

“2050년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정치·사회적인 안정도 필요”



- 일시·장소 : 2019.5.17(금) 16:00~17:30, 롯데호텔 회의실
- 사회: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 대담자: 제롬 글렌 (Jerome C. Glenn, 밀레니엄 프로젝트 대표)

○ 학력

-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 철학과 졸업(BA)
- 안티오크 대학교(Antioch Univ.) 사회과학교육 전공(MA)
- 메사추세츠 대학교(Univ. of Massachusetts) 미래연구 박사과정 수료

○ 주요 경력/활동

- 현) 밀레니엄 프로젝트 대표(공동 설립자), 1996~현재
- 40여 년 이상 미래연구 경험으로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체 등에 자문
- 미래연구 방법론 “Futures Wheel” 개발
- 미래연구 관련 100여 논문 발표

대담 내용

사회: 바쁜 방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제가 미래전략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바로 여기 롯데호텔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워싱턴 D.C.에서도 뵈었었지요. 그 때 그대로의 모습이 십니다. 먼저 대표를 맡고 계신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lenn: 원장님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모습이십니다. (웃음) 밀레니엄 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는 1996년에 비정부기구(NGO)로 창립되어 유엔 등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 64개 지부, 각 분야 4,500여 명의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전문가를 통해 지구적 차원의 15대 도전과제에 대한 미래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첨으로 상술)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소개 좀 해주시지요.



답변: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립된 출연연구기관입니다. 2018년 5월에 개원하여 이제 1주년이 되었지요. 미래연구원은 이사진 구성부터 교섭단체별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부 내에도 연구소는 많지만, 장기적인 미래연구를 수행키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사회: 최근에 글렌 대표님은 밀레니엄 프로젝트 팀과 보고서 두 권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권의 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지요.

Glenn: 이번에 새로 발간한 보고서 중 하나는 지구촌의 15대 도전과제에 대한 미래 측면의 논의를 담은 ‘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 버전 19.1)입니다. 미래보고서는 15대 도전과제에 대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기술 2050 보고서’(Work/Technology 2050-Scenarios and Actions)입니다. 이 보고서는 30년 후의 미래 일자리와 기술을 예측한 것으로, 미래 시나리오와 실행전략을 제시한 것이지요.

사회: 먼저 ‘미래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15대 도전과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15대 도전과제가 고정적인지, 매년 변화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Glenn: 먼저 현재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15대 도전과제를 말씀드리면, ①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②물과 위생, ③인구와 자원, ④민주화, ⑤글로벌 예측과 의사결정, ⑥정보통신기술의 글로벌 수렴, ⑦빈부격차, ⑧건강 이슈, ⑨교육과 학습, ⑩평화와 갈등, ⑪여성의 지위, ⑫초국가적으로 조직화된 범죄, ⑬에너지, ⑭과학기술, ⑮글로벌 윤리 등입니다. 이러한 15대 도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오랜 기간의 연구와 방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쳤습니다. 15대 도전과제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보고서 발간 시점마다 과제별로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어왔습니다. 고정된 도전과제별로 해마다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50년에 대해 연구한 미래보고서는 13대 분야에 대한 것이었는데,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15대 도전과제 분야와 상당히 유사하

네요. 다만 미래연구원은 아무래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각의 이슈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예를 들어 ⑤글로벌 예측과 의사결정, ⑩여성의 지위, ⑫초국가적으로 조직화된 범죄, ⑮글로벌 윤리는 13개 분야에서는 별도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Glenn: 그럼 미래연의 13개 분야에 있으나 15개 도전과제에는 없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사회: 북한, 정주여건, 사람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미래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사람(Human)이 선정되어 이를 별도의 부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15개 도전과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용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보고서에서 한국적 특성과 관련이 높은 도전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Glenn: 한국과 관련된 미래이슈는 단연 남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미래세대를 생각할 때, 북한의 어린이에 대한 영양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영양공급 부족 문제는 미래세대의 두뇌기능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남북간 두뇌격차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남북간에 해소해야 할 문제들로서 소득격차뿐 아니라 두뇌격차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두 번째 책인 ‘일자리/기술 2050 보고서’에서 미래 일자리와 연계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들은 무엇인가요?

Glenn: 미래기술은 인간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공지능, 로봇틱스, 합성생물학, 나노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드론, 무인차량 등의 기술과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환경으로 인하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이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실업 상태가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기술 양극화로 인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이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 상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자리/기술 2050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사회: 아무래도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일자리/기술 2050 보고서’가 도출되기까지 어떠한 방법론과 과정을 거쳤는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Glenn: ‘일자리/기술 2050 보고서’라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3년 동안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우리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실시하는 국제적인 ‘실시간 델파이조사’(Real-Time Delphi Survey)에서 질문되지 않거나 충분히 응답되지 않은 질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문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300명이 넘는 미래학자들은 물론, 45개국 이상의 기술, 경제 등 각계 전문가들과 대안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450여 명의 미래학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시간 델파이조사’를 통해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20개국의 워크숍에서 심층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제안사항들을 분야별로 그룹화하고 정제하여 다시 개별적인 국제 ‘실시간 델파이조사’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50여 국가의 정부기관과 공유하여 개별 보고서를 만들고 통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Q: ‘일자리/기술 2050 보고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거친 것이군요. 말씀하신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는지요?

Glenn: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이 준비가 제한적일 경우 미래기술의 발전과 갈등, 반목 현상 등으로 매우 복잡한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

고 정치는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여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상의 시나리오로서, 바람직한 지도력을 통한 정치적 안정, 미래기술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기본소득 등을 통한 사회적 안정과 빈부격차 해소로 자아실현경제가 도래한다는 것이지요.

사회: 그 중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Glenn: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그 과실을 향유하는 계층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이지요.

사회: 국회미래연구원이 2050년을 내다본 미래 시나리오와도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미리 경종을 울리는 것이 우리 미래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해법과 함께 말입니다. 글렌 대표님은 미래에 대해 대체로 낙관하시는지, 비관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Glenn: 미래학자의 역할은 의사에 빗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낙관이든 비관이든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학자는 다양한 복수의 미래에 대해 가능성을 보여주고,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종’을 울려주는 것 자체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일정이 되신다면 국회미래연구원 세미나 연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Glenn: 저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원의 세미나에 초대해주시니 저도 매우 기쁩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수행하는 미래연구에 대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밀레니엄 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

○ 연혁/활동

- (전신) 유엔대학(UN University) 등과 3년간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 수행
- 1996년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설립
- 전세계 63개 거점, 3,500여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미래보고서' 등을 발간 중

○ 주요 발간 보고서

- (연간) 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
- 미래연구방법론(Futures Research Methodology)
- (근간) 일자리/기술 2050 보고서(Work/Technology 2050-Scenarios and Actions) 등